

9월 1일 임원 간담회 열려

2022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이사회가 9월 1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열렸다. 한윤희 감사를 비롯해 16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사 간담회에서 장명호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MBC의 지원을 받아 사무실 환경 개선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임원들이 참석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라고 생각돼 오늘 회의 장소를 이곳으로 옮기게 됐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반갑

다. 사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상임부회장이 상반기 운영실적과 발전기금, 환경개선공사 등에 대한 보고를 한 뒤 사무처장이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

이날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은 그동안 문화보험의 주 파트너였던 흥국화재가 최근 ‘관계종료’를 통보해 오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것이었다.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7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황외진(MBC C&I 사장) 100만원(2회)
- 최영복(관리) 30만원
- 전준옥(관리) 10만원
- 전미경(편제) 5만원
- 안홍엽(전주) 50만원
- 석남수(기술) 10만원(6회)
- 익명(편제) 10만원



황외진



안홍엽



최영복



석남수



전준옥



전미경

바둑대회 10월 19일(수) / 등산대회 10월 26일(수)

사우회가 주관하는 바둑대회가 10월 19일(수) 오전 10시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바둑동호회 회장단이 바뀌고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A조와 B조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정태

식 총무(010-5214-1805)에게 미리 신청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등산대회는 10월 26일(수) 10시 30분에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앞에서 등반을 시작한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당일 아침 현장으로

나오면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



사무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사무처는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MBC의 지원을 받아 사무처 환경 개선 작업을 순조롭게 마쳤다. 2015년 12월 사무실 일부 단장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이번 작업의 주된 내용은, 벽면 도배, 천정 도색, 창문에 덧문 설치, 바닥 수리, 출입문 보수, 수납 창고 개조 등 그동안 사무처 직원들이 숙원사업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대체로 해결한

공사였다. 9월 5일 전화와 PC 배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열흘간의 공사가 종료됐는데 이번 공사 기간 동안 MBC 자산운영국 직원이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며 공사를 진두 지휘했다.

장명호 사우회장은 MBC가 이번 공사를 지원해준 데 대하여 박성제 사장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임태성(보도)
1984년 보도국 입사. 논설위원 등 역임. 2018년 퇴직. 국제방송교류재단 방송본부장.



김우철(보도)
2002년 보도국 입사. 뉴스영상국 취재카메라부 등에서 근무. 2018년 퇴직.



성보영(기술)
1985년 기술국 입사. 글로벌사업국장, MBC C&I 부사장 등 역임. 2017년 퇴직.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

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회/원/동/정



▶황선길(편제)

6월 22일 Meta verse에 <Whang Gallery>를 개설하고 Typhoto Poem(타이포토 詩)을 전시했다.

‘타이포토 詩’는 문자가 아닌 이미지(영상)로 표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詩다. <Whang Gallery>의 인터넷 주소는 Oncyber.io이며 ID는 whanggallery,다.



▶유혜자(편제)

7월 30일 수필집 『손의 온도는』을 출간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년 반 동안 쓴 글들로,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과 그동안 배우고 만났던 스승, 그리고

문단 선배들에 대한 회고와 함께 20세기의 명화들에 대한 에세이들이 실려있다.



▶김승원(편제.이사)

8월 15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 총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시그니스’는 방송, 신문, 영화, 저널리즘 등에서 활동하는 세계 가톨릭 평신도 언론인과 커뮤니케이터들의 모임으로 교황청 공인단체다.

MBC 소식



▶박건식(MBC 공영미디어국장)

MBC 뉴스를 시청하다가 “제주항에서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라는 멘트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는 분들이 많다. 잘못 들은 게 아니다. 제주MBC에는 ‘이따끔’ 기자가 실제로 있다. 이메일도 ‘따끔’의 의성어인 ouch@mbc.co.kr를 쓰고 있다. 그 밖에도 특이한 이름의 기자들이 MBC에는 많다.

전주MBC에는 ‘고차원’ 기자가 있다. 뉴스데스크 앵커를 한 ‘연보

흙’ 기자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다. 최근에는 ‘김건휘’ 기자가 화제다. 김건희 여사 뉴스를 김건휘 기자가 다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MBC뉴스 김건휘입니다’를 무심코 들으면 ‘김건희’로 들린다.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아침뉴스 시간에 기상정보를 전해주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도 화제다. ‘오요안나’라는 자막이 화면에 ‘잘못 나간 것 같다’고 뉴스센터에 연락한 사람도 있었다. 검색해보면 ‘오요안나’캐스터는 이미 유명

한 셀럽이다. 기독교 계통의 joan, joanne에서 따온 듯 하다.

BTS 부산 공연장소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해 ‘아시아드’ 주 경기장으로 공연장소를 변경하게끔 한 ‘손하늘’ 기자도 있다. ‘이동경’ 기자는 아이다가 tokyo로, 아마도 내심 ‘도쿄특파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이름은 단연



‘남달구’ 기자다. 안동MBC에서 뉴스를 전하다가 나중에 SBS로 옮겼다. “MBC 뉴스 남달구입니다.”라고 뉴스를 전하는 남달구 기자의 이름이 혹시 ‘달구벌’ 대구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진 못했다.

▶MBC뉴스 유튜브 채널 월간 조회 수 첫 4억 돌파

You Tube에 따르면 MBC뉴스 유튜브 채널의 7월 월간 조회 수가 4억 2천만 뷰로, 사상 처음으로 4억 뷰를 돌파했다고 한다. 6월 월간 조회 수 3억 5천만 뷰로 3억 뷰를 처음 돌파하는 기록을 세운 데 이어 한 달 만에 4억 뷰를 넘기는 신기록을 이룬 것이다.

국내외 유튜브 채널의 인기 순위를 제공하고 있는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MBC뉴스 유튜브 채널의 7월 조회 수는 국내 다른 언론사의 7월 기록과 비교해서 여유 있는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마지막 주에는 1억 뷰를 돌파하며 예능과 엔터테인먼트를 망라한 국내 모든 유튜브 채널 가운데 주간 조회 수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 세계 뉴스 채널 순위에서도 7월 조회 수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기자, PD, 경영지원 등 12개 분야

2022년도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지원자에 대한 연령, 학력, 성별, 국적등의 제한은 없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역량면접, 다면심층면접, 최종면접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취재기자 △영상기자 △콘텐츠전략PD △방송촬영 △CG(VFX) △드라마PD △예능PD △시사교양PD △라디오PD △경영지원(인사/재무) △IT(애플리케이션개발) △미디어엔지니어(IT/제작) 등 총 12개 분야다.

작년부터 시행한 ‘기본직무소양 평가’는 역사, 영어 등 분야의 ‘일반 상식문제’에서 벗어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자의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면접전형도 입사지원서를 기초로 지원자의 역량을 심층 검증하는 ‘역량 면접’과 1일~2일간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모집분야별 역량을 검증하는 ‘다면심층면접’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면접 및 과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화상면접 등 비대면 면접 방식도 검토 중이다.

▶〈뉴스데스크〉 여론 영향력 수도권 설문조사서 1위

‘영향력 TOP10’ 프로그램 〈PD수첩〉 〈스트레이트〉등 4개

〈뉴스데스크〉가 수도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제2차 여론 영향력 조사에서 19.3%의 점유율로 1위를 했다. 점유율 2위인 SBS 〈8뉴스〉에 4.5%포인트 차로 앞섰다.

MBC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수도권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남녀 1,986명에게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시사 프로그램 107개와 관련해 9개 문항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뉴스데스크〉 외에도 〈PD수첩〉, 〈100분토론〉, 〈스트레이트〉 등이 ‘영향력 TOP10’에 올랐다. 채널 별로는 지상파 3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여론영향력’ 20위권 프로그램에 지상파 3개 채널이 각각 5개 프로그램을 진입시켰고, 종합편성채널 가운데는 JTBC가 3개, TV조선과 채널A 각 1개씩 20위권 프로그램을 배출했다.

▶MBC, ‘더 샌드박스’와 메타버스사업 파트너십(MOU) 체결

MBC는 글로벌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와 메타버스 사업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9월 1일 MBC스마트센터(강남구 봉은사로161)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MBC 미래정책실 신사업전략 박재훈 파트장과 더 샌드박스 코리아 이승희 대표가 참석했다.

그동안 MBC는 국내에서 메타버스, NFT 등 자체 IP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선보인 바 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MBC는 상암사옥, 제작 스튜디오 등의 가상공간과 함께 메타버스형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더 샌드박스 유저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드라마와 예능, 뉴스를 넘나드는 MBC의 저력 있는 IP들이 국내 유저들은 물론, 글로벌 유저들의 니즈를 모아 ‘또 하나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조사항

구순: 이대섭(편제) 33.10.8 오병석(관리) 33.11.10

팔순: 고일미(편제) 43.10.21 김관중(업무) 43.11.5
김영근(편제) 43.11.6

고희: 구영희(보도) 53.10.5 조현모(보도) 53.10.7
홍학표(업무) 53.10.16 이인숙(ANN) 53.10.18
이선호(보도) 53.10.20 박지희(편제) 53.10.28
김한모(업무) 53.11.1 한귀현(업무) 53.11.10
이수향(보도) 53.11.14 김연두(관리) 53.11.15
권선장(관리) 53.11.15

회갑: 류시준(기술) 62.10.11 김대관(관리) 62.10.14
최한상(관리) 62.10.29 이영자(관리) 62.10.29
이선영(ANN) 62.11.8 허경희(관리) 62.11.8

결혼: 전연식(편제) 아들 9/4 성보영(기술) 아들 9/4
권혁화(ANN) 딸 9/25 지윤태(보도) 아들 9/25
심원택(보도) 아들 10/2

부음: 이영우(편제) 모친상 7/7 박영선(보도) 모친상 7/18
임남규(관리) 배우자상 7/28 김준수(기술) 모친상 8/6
강병문(편제) 장모상 8/14 김대관(관리) 모친상 8/26
정각종(기술) 장모상 9/2

연회비

평생회비: 지윤태 김성익 성보영

2022년: 황진욱 이영자 유민환 임태성 김억동 김굉안 김우철
2024년: 이영하 2025년: 박승기

주소 / 전화번호 변경, 신규

편제: 김만기 경기 김포시 장기동 1312, 청송마을
황학구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해솔마을 2단지 월드메르디앙)

보도: 김상진 서울 은평구 진관4로 87(은평뉴타운상림마을푸르지오아파트)
김우철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20길 50(반포동, 가솔빌라)
지윤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23(당산현대 3차)
임태성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7(우성4차아파트)

기술: 김종윤 서울 노원구 동일로230가길 71(우림루미아트)
성보영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70(힐스테이트송파위례)
이근수 경기 의왕시 계원대학로 27(성삼아이비즈2차)

업무: 심재정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1(우성아파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田鍾久(기술)
7월 15일 별세. 향년 84세.
1969년 TV 기술국 입사.
기술감독 등 근무.
1979년 퇴사.



金寬植(관리)
8월 3일 별세. 향년 65세.
1983년 총무국 입사.
안전관리부장, 경인지사장
역임. 2015년 퇴사.



張容澤(관리)
8월 16일 별세. 향년 84세.
1969년 총무국 입사.
시설부장, 정책기획실국장
등 역임. 1996년 퇴사.



金成基(기술)
7월 26일 별세. 향년 89세.
1972년 기술국 입사.
라디오 기술부 등 근무.
1990년 퇴사.



高泰元(편제)
8월 9일 별세. 향년 92세.
1969년 TV제작국 입사.
미술1부 세트실 근무.
1980년 퇴사.



吳斗泳(편제)
8월 23일 별세. 향년 86세.
1969년 TV제작국 입사.
미술1부 세트실 근무.
1993년 퇴사.

인사동MBC의 증발蒸發



장명호
(사우회장)

“이곳 인사동
15번지는 1961
년 MBC가 첫 방
송을 시작한 장소
입니다”
종로에서 안국
동으로 가는 인사

동길 첫 번째 만나는 네거리 한가
운데 이런 글귀가 적힌 동판 하나
가 있습니다.(사진) MBC 창사 30
주년에 맞춰 설치한 기념물입니다.

당시 <인사동 15번지>는 이른바
'동일가구' 건물(건물주는 前 상지
대 이사장 김문기)로, 1층은 동일가
구가 사용하고 2층부터 5층까지는
MBC가 이곳에서 개국한 뒤 정동
으로 옮기기 전까지 9년 동안 사용

하던 연주소였습니다.

나중에 덕원갤러리가 매입하여
건축가 권문성씨가 2003년 리모델
링하여 '덕원갤러리'와 '미술세계'
사무실인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
습니다.

얼마 전 인사동을 지나다 들렀더
니 건물주가 또 바뀌어 '미디어그룹
더원'의 '더원 미술세계', '갤러리 보
야'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가구점으로 출발한 건물은 옥상
으로 올라가는, 가로지르는 듯한
계단을 만들어 마치 인사동 골목을
연상케 합니다.

건물 외부 마감은 전통 사찰에서
볼 수 있는 破기와를 회벽과 함께
쌓아 올린 모습이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을 감싸 안으려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
디어그룹 더원'의 건물역
사 설명 가운데 “6,70년
대 극동방송과 TBC가 개
국했던 장소”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어 ‘역사 왜곡
이 이렇게도 이뤄지는가’ 라는 안
타까운 생각이 들어 조만간 따져볼
작정입니다.

<극동방송>은 인천 북성동에서,
<TBC>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출발했는데 ‘왜 MBC가 빠지고 극
동방송과 TBC가 등장했는지’ 궁금
합니다. 아마도 건축가 권문성 씨
의 최초 설계의 글에 잘못 소개되



어 계속 인용되어 온 게 아닌가 생
각됩니다.

30여년 전에는 MBC 발상지인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하여 'MBC
방송자료관'으로 활용하자던 주장
(김정환 前 방송문화연구소장)도
있었지만 끝내 묻혀버린 것이 이제
와보니 정말 아쉽습니다.

김승월칼럼



김승월
(편제·이사)

●개한테서 배웠다.

어느 가난한 마을에서 성당을 짓고 있었다. 한 여인이 신부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지내면서 강아지를 길러 정이 흠뻑 들었는데 개에게 세례를 해주시면 1억원을 봉헌하겠습니다” 신부님은 황당했지만 마지못해 허락했다. 얼마 후 신부님이 주교님을 만나 개에게 세례한 이야기를 들려 드렸다. 유심히 듣던 주교님이 신부님에게 말했다. “그 개가 견진성사 볼 때는 나에게 꼭 연락하게.” 이런 이야기를 친구 신부에게 들려주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혼인성사는 내가 해주면 안 될까?” 물론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다. 그런데 비슷한 실화도 있다. 어느 신부님에게 직접 들었다. 한 신자가 ‘개도 성체를 모시게 하면 안되냐’고 물어 신부님이 그러셨단다.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성체를 모시냐’고. 또 어떤 신자는 개가 죽었는데 ‘연미사를 드릴 수 없냐’며 진지하게 문의했다고 한다. 여느 사람이 들으면 눈살 찌푸릴 이야기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개를 키워본 사람은 다를 게다.

애완동물이 엄청난 위안을 준다는 것을 키워보고 나서야 알았다. 나는 당초 개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 애완동물 기를 돈 있으면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내게 친구가 권했다. 혼자 적적하게 집 지키는 어머니를 위해 개를 길러 보라고. 어머니도 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다. 두 달 된 새끼 시추를 데려오던 날 짜증까지 내셨다. “무슨 고생 더 시키려고 개를 데려왔냐?” 코가 납작해서 납작코를 줄여 ‘자코’라고 이름 지었다. 자코는 그다지 영리하지 못해 배변 가리기 훈련도 쉽지 않았다.

집안 이 구석 저 구석에 오물을 쏟아 냈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오는 자코가 싫어서 빗자루로 쓸어내듯 내몰곤 했다. 구박 하건 말건 자코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있으면 옆에 앉아 주고, 눈물을 흘리기라도 하면 어

머니 눈가를 훔아 주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졌다. 손주와 놀듯 자코와 이야기 하며 지내게 되었다. 자코를 잃어버렸던 날, 어머니는 숨넘어갈 듯 울부짖었다. “자……코가…… 없어졌다.”

자코가 새끼를 한 마리 낳았다. 다람쥐 같이 생겨 ‘다람’이라고 이름 지었다. ‘다람’이는 머리가 지독히 나빴다. 뭐 하나 훈련시킬 수도 없고 평생 배변도 가리지 못했다. 게다가 성질 급하고, 욕심 사납고, 앞니는 빠죽이 튀어나왔고, 다리는 심하게 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에게는 해바라기였다. 아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앉거나 누우면 아내 몸에 자기 몸을 찰싹 달라 붙이고는 같이 앉거나 누웠다. 누군가를 한결같이 바라보는 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내도 다람이를 끔찍이 예뻐했다. 덤덤하던 나도 조금씩 달라졌다. 개를 키우다 보니 속상한 일도 늘었다. 어린 애처럼 떼를 쓰고 짓어대면 아래층 사람들이 항의를 해왔고, 미운 짓 할 때 때릴 시늉을 하면 맞을 자세로 움츠렸다. 그러다가도 금세 장난치며 안겼다. 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했더니 딸이 말했다. “꾀할 때도 있어. 근데 몇십 분 지나면 다 잊나 봐.”

그런데, 개 키우며 못할 짓이 이별하는 일이다. 자코는 12살 되던 해에 가버렸다. 그 한 해 전에 어머니께서 94세로 돌아가셨다. 시각과 달리 청각은 죽는 순간까지 살아 있다는 말이 있다.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 쉬며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만 작별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먼저 천국에 가 주세요. 저희도 곧 따라 갈게요.”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다. 그리고는 잠시 후 숨을 거두셨다.

자코가 떠나 던 해, 신장병을 심하게 앓았다. 하루는 퇴근해 들어오니 눈도 뜨지 못하고 주검처럼 누워 있었다. 뻗뻗하게 뻗친 다리를 보니 곧 죽을 것 같았다. 며칠을 앓아 초체해진 몸골이 안쓰러워 가슴에 살며시 손을 댔다. 미약하게 심장이 뛰었다. 나직하게 이름을 불러보았다. ‘자코’. 순간 자코의 굳은 다리가 약간 움직였다. 한번 더

불러 주었다. 다시 움직이는 듯했다. 그리고는 몇 분 후 떠났다. 숨넘어가는 순간에 안간힘으로 작별인사를 한 것이다. 교감이나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다. 마음을 다해 대하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 개한테서 배웠다.

●발이 말한다

‘쿵’하고 마루 바닥이 울렸다. 주방에서 보행기 짚고 다니는 어머니의 발소리다. 어머니 발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흔을 넘어서면서 어머니 병환이 깊어졌다. 몸 놀리기 힘들어 온몸의 힘을 실어 한발 한발 겨우 떼시는데 발걸음 옮길 때마다 무거운 짐 내려놓는 듯한 ‘쿵’ 소리가 났다. 갈수록 발소리 사이도 점점 길어지고 불규칙해지더니 그런 소리마저 못 내시다가 이 년 전 하늘나라로 가셨다.

라디오 드라마에서는 발소리로 많은 것을 표현한다. 음향효과맨은 스튜디오 안에서 성우들 동작에 맞춰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 내는데 무엇보다 먼저 발소리 내는 법을 익혀야 한다. 발소리가 음향효과기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발소리만으로도 남자와 여자를 표현할 수 있다. 같은 신발이라도 무게감을 달리하여 남자와 여자의 분위기 차이를 낸다.

같은 여자라도 조신한 모습과 씩씩한 모습을 다르게 들려준다. 발소리를 좀더 섬세하게 내면 그 사람의 덩치나 성격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 발소리로 장소를 그려내기도 한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구두 소리는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처럼 번듯한 곳을 짐작하게 한다. 모래흙 밟는 소리는 운동장이나 시골 집 마당을 상상하게 해준다. 아스팔트 길 걷는 소리는 도시를, 풀숲 스치며 걷는 소리로 산길을 나타내고 낙엽 밟는 소리, 눈 밟는 소리로 계절까지 표현해낸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발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기억 되기도 한다. 술 한잔 걸치고 쿵쾅거리며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아빠의 구두 소리. 두 계단씩 경충경충 오르는 아들의 운동화 소리, 날 듯 말 듯 다가오는 어머니의 발소리. 사랑하게 되

면 그 사람의 발소리도 절로 외워질 게다. 소리에 예민한 개들은 사람이 듣지 못하는 식구들 발소리를 듣고 현관에 나가 꼬리를 흔들며 기다린다. 임이 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기다리는 조선 시대의 애달픈 시가 있다.

설월월이 만정滿庭한데 바람아 부지마라 예리성履聲 아닌 줄은 변연然히 알건마는 그림고 아취운 마음에 행여 긴가 하노라

예리성은 ‘신발 끄는 소리’다. 기다리는 사람의 발소리는 마음이 먼저 알아듣는다. 행여 임이 오는 소리 놓칠까 봐 귀 기울이다 보니 바람 소리가 임의 발소리처럼 느껴진다. 바람 소리 스산하니 애달픔이 더하다.

미술 수업 정물화 과제로 자신의 신발을 그려오라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 난생 처음 내 운동화를 세세하게 들여다봤다. 너 나 없이 가난하던 시절, 당시 운동화는 변변치 않았다. 게다가 내 걷는 습관대로 뒤축이 심하게 닳았고 바닥에는 군데군데 오물이 끼었다. 쿼퀴한 냄새가 짙게 풍겼다.

신발을 살피다 보니 발이 달리 보였다. 발은 몸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내 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얼굴처럼 자주 들여다 봐주지도 않고, 목욕할 때조차 제대로 닦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온갖 바닥을 밟고 내 온몸을 떠받쳐준다. 그 고단하고 험한 일을 하는 발의 수고를 덜어주는 게 신발이다. 발을 감싸주며 더럽고 험한 곳도 디며주며 내 흔적과 체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볼수록 신발에는 많은 것이 담겨있다.

극진한 사랑을 그 사람의 발에 표현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한 없는 공경을 발에 표현했다. “예수님 뒤편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루카 7:37)

사랑으로 보면 많은 것이 보이듯 사랑으로 들으면 많은 것이 들린다. 발소리만 듣고도 알아낼 것이 많다. 지금 들리는 저 소리는 누구의 발소리일까?

북리뷰



안홍엽(전주)

“시인詩人이 아닌 적도 없었지만 시인인 적도 없었다”고 술회述懷하는 안홍엽(전주)회원은 금년 86세로 1968년부터 1995년까지 만27년간 전주MBC PD로 일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한국방송대상, 전라북도 문화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지만 무엇보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를 프로그램화 해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게 한 공로가 크신 분이다.

열악한 지역방송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PD로서의 부지런함은 역사드라마 <전북근세사>, 인물열전 <녹두장군>, 향토드라마 <비사벌의 별들> 등 정체성을 찾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그치지 않고, <한국지방방송론>, <한국방송의 편성기준 연구>, <지방방송의 편성전략과 제작방향> 등의 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함으로써 방송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했었다. 그리고 그는 시인이다.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사람들은
바람 때문이라 한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두 시인이다
일기 쓰듯 시를 쓰는 시인은
시가 별거냐고 말한다

돌 보고도 아름답다는 사람
꽃 보고 예쁘다는 사람
마음에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
모두가 시인이다

요즘 모든 것이 예쁜
나도 시인이다

-나도 시인

2017년 5월, 증조부가 쓰신 한시漢詩 100首를 담은 “염와집”念窩集 국역본과 함께 자신의 산문집 “별과 사랑과 그리움과”의 합동출판기념회를 가졌던 이후 5년 만에 시집 <사랑이 꽃비 되어>를 최근 출간했다. 백담白潭이라는 아호로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북펜문학회 등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써두었던 123편의 시를 수록했다. 작품 곳곳에 노년을 바라보는 시인의 원숙한 성찰省察이 묻어있다.

나를 여기서 있게 한 것은
늦었지만 아주 다행한 일이다

시집 『사랑이 꽃비 되어』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기에
너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살아 온 날들을 알고 있느냐

거울 속의 나는
버릴 용기도 던질 힘도 없는
늦게야 울면 다시 울음이 될 회한

내가 던진 어떠한 질문도 대꾸할 수 없는
차라리 다시 태어나라 그 대답뿐

허망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둠은 깃들고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울 속의 나는 말한다
참 부질없는 사람이라고

-나와 나의 만남(거울 앞에서)

‘세월 앞에 장사壯士 없다’던가. 전주와 서울을 오가며 그리도 썩썩하고 부지런하게 활동하던 그는 지금 8순 고개를 힘겹게 넘고 있는 중이다. 부축을 받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졌다. 차분하면서도 구수하던 말솥씨도 전 같지 않아 듣는 이를 안타깝게 한다.

방송 얘기만 나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그 끝없는 의욕이 쇠약해진 육신의 영향을 받아 내면으로 침잠하고 있는 듯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 노인의 심정은 어떤 걸까. 그리고 그 소식의 주인공이 ‘나’라는 가정假定은 이제는 현실적인 명제가 됐다.

먼 길 떠나려니 챙길 것도 많구나
챙겨줄 사람 없다는 것도
챙길 일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동무라도 많이 둘 것을
많으면 뭐 하겠나

꼬깃꼬깃
눈물 어린 사연도
감춰둔 자투리 용돈도
버리고 가야 될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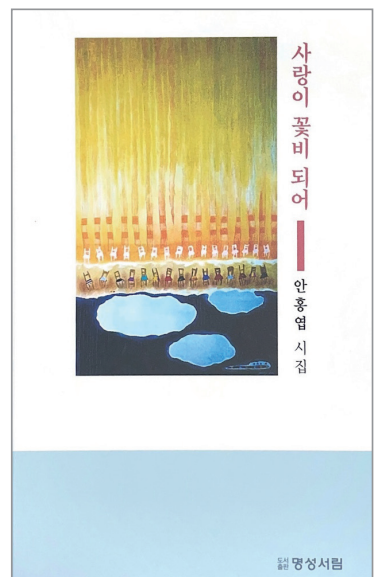
뭐하느라 짐이 그리 무거우냐
무거운 짐 나 달라고 성지는 말했거늘
어찌하여 이제와 혼자 힘들어 하나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세상
준비도 혼자서 하리라

-먼 길 떠나려 하니

시집에는 오늘을 사는 노년의 일상은 물론 노년을 맞아 돌아보는 유년 시절과 젊은 날의 애기가 가득 담겨 있다. 그의 시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끝없는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물의 표피를 꿰뚫는 날카로운 투시력과 순간순간 번뜩이는 재치와 감각적 이미지가 돋보이는 백여 편의 시들을 읽으면서 젊은 날의 ‘안홍엽PD’의 열정을 되새김과 동시에 ‘안 시인’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

<편집장>



안홍엽 시집



전주대사습 전국대회



명예퇴직식

‘인생 제2막’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원영(기술)

1. 계기 및 준비
2019년 3월, 친구로부터 ‘퇴직 선배들 중 고급 또는 중급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시면 소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퇴직 선배님들께 이런 자격증 보유 여부를 물어봤지만 그런 자격증 조차도 모르는 분이 허다했습니다. 결국 소개는 불발됐지만, 그 일을 계기로 ‘만약 내가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면 퇴직한 뒤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증명을 얻기 위해 정보통신공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방송 경력을 등록한 후 초급 기술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초급 기술자 자격을 가지면 5일 간의 감리원 교육을 거쳐 ‘초급 감리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감리원 교육 강사들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사들이어서 현장 실무 중심의 설명과 함께 기술사 자격증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자주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주변의 퇴직을 앞둔 2,3년 차들 대부분이 퇴직 후 사용할 실용적인 기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도 역시 기사 준비를 하려 했지만 기술사에 대한 효용성을 듣고 나서는 아예 기술사에 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점, 인터넷을 통해 기술사 준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기술적 원리 및 기본이론이 제겐 너무 생소하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2. 첫 번째 도전 <안식년>

당시 저는 TV 송출부 주조정실 기술감독으로 5교대 근무를 수행

하고 있었는데, 방송 사고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에 신경을 쓰느라 개인 휴대폰은 아예 라커에 보관하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면서 업무가 좀 한가한 시간이면 휴대폰을 꺼내 필요한 자료를 찾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 이러면 안 되는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실수나 부주의로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회사에 피해를 준 적도 없는 나로서 만약 공부한답시고 뜻밖의 실수라도 저지르는 날이면 나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회사에도 손해를 미치리라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내에게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안식년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한 뒤 다음 근무 시에 바로 안식년 신청을 했습니다.

안식년동안 많은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기술사 첫 시험은 2020년 2월에 치렀습니다. 안식년 시작 후 약 3개월간 학습한 내용을 기본으로 400분 동안의 논술시험을 ‘그냥 경험 삼아서’ 치렀는데 의외로 좋은 성적을 얻게 되자 합격에 대한 기대를 단축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2회의 시험을 통해 시험 전략과 약한 과목을 파악하였지만 그러나 당초 계획한 1년의 기간 만으로는 기본을 다지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3. 두 번째 도전 <명예퇴직>

2020년 11월, 복직을 통해 1년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직무 재교육 및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차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시행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고 저는 또 한 번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당장 2021년 2월로 예정된 기술사 시험 준비를 위해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써 버린 안식년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별도의

근무 변경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당시에는 동료 기술감독들의 25년 휴가 등이 몰려있어 근무 변경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명예퇴직만이 저의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입사 이후 줄곧 보게 된 선배님들의 정년퇴임식은 늘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단상의 전광판에 비친 선배님들의 사진과 약력 소개는 나의 미래에 펼쳐질 자랑스러운 정년행사로, 가족들의 박수를 받고 회사를 떠나는 정년퇴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새로운 세계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자랑스러운 정년퇴직’은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식년을 하겠다는 얘기와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얘기는 차원이 다른 만큼 아내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고, 고맙게도 아내는 저의 명예퇴직 결정을 적극 수용해줬습니다.

다행히 큰 아이는 직장을 다니며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었고 아직 학생인 둘째 아이에 대한 이런저런 지원은 아내가 책임지기로 했으며, 저는 앞으로 2년 동안 시험에 전념하여 ‘새로운 인생’ 준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에서 직무 인수, 인계 등 모든 퇴사 절차를 마친 2020년 12월 31일로 저는 퇴직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동료들과 작별 인사 자리 한번 제대로 갖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유롭게 자격 시험 준비가 가능했지만 그러나 2021년 치른 첫 시험의 불합격은 큰 실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명예퇴직을 하기로 한 결정은 지속적으로 나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부담감을 안겨주기도 했던 의사결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회사도 없이 마치 광야에 홀로 남겨진 채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예상보다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명예퇴직 1년이 지나고 두 번의 시험을 치렀지만 몇몇 과목이 매번 저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깨

닫고 나서는 학원등록을 포기하고 혼자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스터디 멤버들의 도움으로 주중 1회 정도 스터디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부족한 이론을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4. 인생 제2막 시작 <2022년 4월 15일>

2022년 3월 11일에 마침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이후 시행된 면접시험까지 무사히 통과하고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증을 수령한 2022년 4월 15일은 명실상부한 저의 ‘제2의 인생’ 시작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MBC 방송기술 경력자 이원영’에서 ‘정보통신기술사 이원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5월이 되자 새로 탄생한 정보기술사들을 채용하기 위한 여러 엔지니어링 회사들의 공고가 났고, 저는 그중 철도공단업무 감리가 가능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선택해서 현재 철도공단 서해선 복선전철 신설현장의 ‘무선통신설비구축 감리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의 업무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가장 체계가 잡혀있어서 이곳에서 일한 경력이면 나중에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감리업무는 모든 작업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업무라서 저 같은 감리초보자에게는 반드시 배워둬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래 모습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입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란 대한민국 명장 등 산업현장의 우수한 숙련된 기술인들이 보유한 노하우 및 기술을 특성화고등학교 및 중소기업 등에 전수함으로써 학교 및 산업현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영방송에서 잔뼈가 굵은 몸이니만큼 남은 인생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저의 수줍은 소망을 사우회 선배님들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태풍 보도 삼세 번



지윤 태(보도)

“이놈, 드디어 나타났구나”

북위 20도 동경 140도. 적도 조금 위 필리핀 동쪽 북태평양 부근 이른바 태풍 발생 해역에 회백색 소용돌이가 보인다. 태풍의 모체인 열대성 저기압(tropical depression)이다. 안 그래도 예년 같으면 두세 개쯤 만들어질 때라 불안하게 기다려왔는데 때마침 아기태풍이 기상 위성 모니터에 첫 모습을 드러낸 시간은 7월 20일 〈MBC 뉴스와이드〉 준비가 한창이던 새벽 5시 무렵이었다.

격앙됐던 지난날의 재해방송 잔영殘影이 짧은 순간 뇌리를 스치고, 이어서 방송을 앞둔 상황정리가 재빠르게 이뤄진다. ‘태풍으로 발달하는데 하루 이를 정도는 걸리겠고 동북아시아까지 접근하려면 사나흘 정도...아직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바로 오지는 못할 거야. 일단 지켜보자’

7월 23일. 빠른 속도로 북상하던 이 열대성 저기압에 남자 이름 네이션(Nathan)이 붙여졌다. 맨 처음 태풍에 이름을 붙인 나라는 호주다. 당시 호주 예보관들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태풍에 붙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공군과 해군에서는 자신의 아내 혹은 애인의 이름을 붙였다.

현재 태풍 작명소는 미국 태풍 경보센터. 1978년 이후부터는 남성과 여성 이름을 번갈아 달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 92개를 선정해 이를 순서대로 붙이고 있다.

기상청과 미국 일본 3개국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태풍 네이션의 진로는 오키나와 부근을 거쳐 동

해로 비껴가는 것. 마음이 한결 가볍다. 컴퓨터그래픽으로 태풍 진로를 만들고 몇 마디 원고를 정리하는 것으로 일을 마쳤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기상정보 방송은 ‘One man system’이다. 기상 상황 감시와 이에 따른 자료 수집, 원고 작성과 화면 구성 그리고 방송 진행까지, 날씨에 관한 한 한 사람의 기상캐스터가 모두 처리해야 한다.

부분적으로는 스크립터를 두거나 기상 전문 프로듀서제 도입, 외부 리포터 기용 등 기상방송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선진국 방송사처럼 수십 명으로 구성된 전문적 운영체제에 근접하기에는 국내 방송상황으로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그럭저럭 태풍 네이션이 동해로 비껴간 날은 7월 25일.

이튿날 오전 6시 10분경. 스튜디오로 막 발을 옮기는데 벨이 울린다.

“기상청 H과장입니다. 오전 6시를 기해 태풍경보를 발표합니다. 이거 방송될 수 있어요? 6호 태풍 오펜리아가 지금 오키나와 남동쪽.....”

수화기를 내던지듯 하고 보도미술투로 달린다.

“태풍 타이틀하고 예상 진로 그래픽 두 장을.....”

그림을 의뢰하고 뉴스센터로 달려면서 중얼거린다.

“뛰면 안 돼. 숨차서 방송 못 해...”

허겁지겁 마이크를 차니 방송 2분 전. 태풍의 이름, 위치, 진로 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웬 외올 숫자가 이리 많아..” 불평을 할 틈도 없이 따가운 조명 아래 큐사인이 들어오고 흠쳐본 ‘ON AIR’ 모니터에 또 하나의 내가 보인다.

손아귀에는 급히 몇 자 적어놓은 메모지가 땀에 젖어 휴지처럼 구겨져 있고..... 긴장의 시간이 지나고 언제나 무겁게 느껴지는 스튜디오 문을 밀고 나오는데 사회부 A 선배가 묻는다.

“그거 다 외운 거야?”

다행히 오펜리아도 우리나라를 비껴갔다.

이제는 매 시간 기상위성 모니터를 들여다 보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대기권의 3천 배가 넘는 거리. 지상 3만 5천 8

백여km 상공에서 쉬지 않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기상위성이 고맙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정지기상 위성(GMS)과 미국 해양대기국이 띄운 궤도위성(NOAA) 등 두 개의 위성으로부터 기상정보를 제공 받는다.

이들 위성은 세계기상기구(WMO)의 규약에 따라 전 세계에 무료로 정보를 제공한다. 덕분에 기상청 뿐 아니라 MBC와 기타 방송사에서도 기상위성 영상을 수신해 즉시 안방 TV에 까지 전달할 수 있다.

하루가 지난 7월 27일. 위성 모니터에 태풍이 또 나타난다. 장마전선의 발달과 더불어 이번에는 정말 심상치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장마전선과 태풍은 친구다. 지도를 펼쳐 이동 거리를 계산하니 대략 이를 후쯤 우리나라 부근에서 태풍과 장마전선이 합쳐질 것 같다. 불과 한 주 동안 세 개의 태풍이 몰려오다니.....28일 아침, 〈MBC 뉴스와이드〉를 통해 6호 태풍 퍼시의 북상 소식을 전했다.

“이번 태풍은 진짜야?”

“와봐야 아는 거야?”

보도국 몇몇 선배와 간부들의 조바심이 다시 긴장감을 부채질한다.

태풍의 진로에 대해 현대 기상학의 정확도는 아직 매우 낮다.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하루 뒤의 진로 오차가 약 2백km 정도로 서울에서 대전 거리에 해당되고 이를 이상의 진로 예상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특이 기상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기 보다 추적 감시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29일 새벽 4시경.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야 했다. 너댓 가지 다양한 그래픽 화면도 만들고 재해방



송에 대비해 방송 시스템도 점검했다. 〈MBC 뉴스와이드〉의 타이틀에 이어 앵커의 오프닝 멘트가 새벽 하늘에 전파를 탄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퍼시가 우리나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에도 무사히 넘겼으면 좋겠는데..태풍은 벌써 오키나와를 지나 제주도 남동해상으로 진입한다.

저녁 무렵에 이르러 태풍은 방향을 조금 트는 느낌이다. 태풍을 밀어 올리는 아열대 고기압 세력도 다행히 예상만큼 강하지 않아 비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생방송 〈MBC저녁 뉴스〉에서는 이 부분을 일단 조심스럽게 유보했다. 보도국장으로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철야방송 준비 지시가 내려졌다.

피해 예상 지역에 중계차가 배치되고 철야근무 인력도 확정됐다. 밤 9시 〈MBC뉴스데스크〉 시간. 태풍이 조금 더 방향을 틀었다. 철야방송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자정이 넘자 태풍 퍼시는 대마도 부근을 지나 동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었다. 이제 안심이다.

30일 아침 6시 반. 기상청은 퍼시 상황을 종료했다. 한 주 동안 잇따라 북상한 태풍 3개가 모두 비껴갔으니 보통 행운이 아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기상청 예보관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태풍도 물러가고 장마도 끝나가는데 퍼시라도 가셔야죠?”

“거 무슨 말이요. 지금 대만 동쪽에 또 하나 열대성 고기압이 생겼는데 아무래도 주말쯤 올 것 같애...”

(1993년 8월 『MBC가이드』에서 옮겨옴)



MBC 구내식당 이야기



문성수(관리)

▶1986년, 국내 유수의 일류호텔을 떠나 MBC의 구내식당 주방 책임자로 옮기면서 내 마음속에는 ‘최고의 방송 MBC의 구내식당을 일류호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당찬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각오는 다행히 경영진에서도 백퍼센트 뒷받침해준 덕분에 1999년 퇴직할 때까지 13년 동안 300여종의 양식洋食과 200여종의 한식韓食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 이제 나이 들어 한가한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그때를 전후한 추억들이 방울방울 떠올라 혼자 미소 짓기도 한다.

▶사원들의 식사가 끝날 무렵 주방에서는 다음 식사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사원들이 ‘어떤 반찬을 얼마나, 왜 남겼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한다. 취향도 다양하고 식성도 제각각인 사원들의 입맛에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영양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되 기왕이면 많은 사원들이 좋아할 반찬을 마련하는 게 주방장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날인가 식사에 삶은 계란을 한 개씩 제공한 적이 있었다. 그런

데 한 사원이 먹지 않은 계란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목격한 나는 그에게 ‘왜 계란을 그냥 버리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내 돈 내고 산 계란을 버리는데 왜 참견하느냐’고 답하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먹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먹게 놔두는 게 맞지 않느냐, MBC 직원쯤 되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을 게 아니냐. 그래도 그는 인상을 쓰면서 ‘당신이 뭔데...’ 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사장님께 당신의 말을 그대로 전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서니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마지못해 사과를 했다

▶초기에는 외부 사람들도 우리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방송사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단체로 몰려오는 바람에 작업이 늦게 끝난 직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었다. 외부 사람들이 식당에 드나들던 때의 일이다. 한 사람이 식사하다 말고 주방장을 찾았다.

나가봤더니 손에 작은 돌조각을 들고 ‘이게 밥에서 나왔다’고 따지듯이 말했다. 뭔가 시비를 걸려는 눈치였다. 그런데 왕년에 수석壽石 수집하느라 돌에 대한 지식이 웬만

큼 있는 내가 보기에 그 돌은 바다에서 나는 해석海石 종류가 확실했다. 그래서 점잖게 물었다. ‘벼가 어디에서 자라죠?’ 그러자 ‘논에서 자라죠’한다. 그래서 ‘이건 바다에서 나는 돌 종류인데 이게 어떻게 밥에서 나온단 말이지?’ 하고 따졌다. ‘아무리 많은 밥을 하지만 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살핀 뒤에 밥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밥에 돌이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책임진다’고 자신있게 말하자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슬며시 물러간 일도 있었다.

▶故이수정 전무와 故이득렬 사장은 당뇨 증세 때문에 쌀밥 대신 보리밥을 선호했다. 그래서 따로 보리밥을 지어 식단에 놔드렸는데 가끔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다소 의아하게 여겼던 적도 있었다. 이수정 전무가 문공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얼마 후 코리아하우스 주방장이 내게 전화를 했다.

내일 문공부장관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가 있는데 ‘장관님 식성에 대한 참고자료를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꼭 보리밥을 드리라’고 귀뜸해줬다. 그날 식사를 마친 이 장관이 주방장을 불러 ‘내가 보리밥 먹는다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냐’고 물어

‘MBC주방장에게 물어봤다’고 실토했더니 껄껄 웃으시며 ‘고맙다’고 칭찬하더라.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고정 출연자가 있었다. 물론 외부 사람이다. 어느 날인가 식권을 내지 않고 식사를 했다. ‘식권 내는 것을 잊어버렸겠거니’ 생각했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을 당당하게 ‘공짜식사’를 하는 것이다.

직원의 보고를 받고 ‘어떻게 말을 해야 기분 상하지 않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그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넌지시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 왈, “아니 그랜저 타는 사람이 지 밥값을 안낸다고?” 하더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후로는 식권을 꼬박 꼬박 냈다. 얼굴로 식권을 대신할 생각은 아니었을텐데.

▶지금 상암동 구내식당의 주방장은 내가 있을 때 막내로 일했던 후배다. 세월이 그만큼 지났다. 현재의 구내식당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음식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가끔 궁금하지만 그렇다고 눈으로 확인할 생각은 없다.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훌륭한 주방장이 나를 열심히 고심해서 최고로 좋은 식단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문화방송(MBC) 사우회

동화인협동조합
DONG HWA IN COOPERATIVE

문화방송(MBC) 사우회의 상조는 동화인협동조합과 C&G라이프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100% 후불제 상조**



C&G라이프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장례를 책임지는 의전 전문 회사입니다.

사우회 상조관련 문의
010-8761-6643

전국 24시간 대표번호
1544-4744